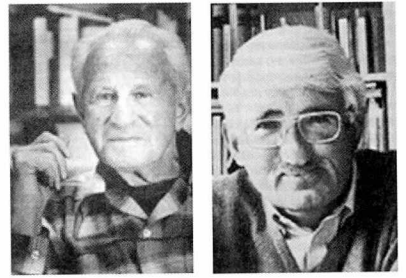


텔레비전은 이윤추구 위한 문화산업일 뿐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텔레비전론

문헌병 | 신라대 철학과 교수



사진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표적 이론가인 마르쿠제(왼쪽)와 하버마스.

192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사회철학을 전개해온 프랑크푸르트학파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불행한 원인을 분석·비판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추구해왔다. 주요 인물로 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마르쿠제·벤야민·프롬·하버마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철학의 주요 기능을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학파의 이론을 '비판이론'이라 부른다. 이 학파의 비판 대상은 근대성·이데올로기·전체주의·실증주의·대중문화 등 광범위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중은 대중문화의 주체가 아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에 대해 프랑크푸르트학파는 193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런 점에서 대중문화 이론에서 선구적이다. 영국 BBC가 1936년에 최초의 정규 텔레비전 방송을 개시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대중문화를 생산·유통·소비하는 주요 매체인 텔레비전에 대해서도 비판이론의 비중은 크다.

그런데 필자가 과문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학파의 주요 이론가들이 텔레비전만을 주제로 삼아 논의하고 있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대중문화나 이를 실어나르는 대중매체(특히 미디어 기술)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현대 자본주의사회를 전면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로 규정한다. 뒤에 마르쿠제는 그것을 비판 능력이 마비된 '일차원적 사회'라 불렀다.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인간은 현재의 불행과 고통을 의식하고 극복할 계기를 가질 수 없다. 대중문화도 그런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대중이 대중문화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이 학파는 대중문화라는 말 대신에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대중문화가 하나의 산업이라면 문화 생산자는 자본가가 되고, 대중은 문화상품의 소비자가 된다. 자본은 궁극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할 뿐, 문화의 인지적·비판적 기능이나 질적 향상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대량 소비를 유도하는 정보(광고)와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을 제공하는 문화산업은 자본의 배를 채우는 '돈벌이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은 상상과 반성의 기회 박탈해

더 중요한 문제는 문화산업이 개인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있다. 한 예로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대중음악은 곡조가 거의 유사한데, 이는 시청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단조로운 곡을 반복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 결과 시청자의 듣기 능력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오락용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는 오늘날의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현대의 첨단 미디어 기술로 영상과 소리를 혼합시켜 가상을 현실과 거의 동일하게 묘사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가상과 현실을 동일시하게 해 현실인식을 흐리게 하고, '가상적 현실'을 실제 현실로 받아들여 함으로써 상상과 반성의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상상과 반성은 불행한 현재를 벗어나게 해주는 매개이기 때문에 그 상실은 현존 상태를 지속시킬 뿐이다.

문화산업으로서 텔레비전은 그 내용이 외견상으로는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편일률적이어서 문화의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형식적으로는 시청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시청자가 참여하는 쌍방향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지 내용상 별로 차이가 없는 채널 선택의 자유만 있고, 각종 콘텐츠나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정도의 참여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텔레비전과 같은 '문화적 기술'은 이윤 추구라는 외적 강제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근본 견해다. 마르쿠제의 다음과 같은 말은 숙고해볼직하다.

"환상적이긴 하지만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모든 광고의 갖가지 주입 미디어가 없어진다면, 개인은 충격적인 공허 속에 빠져들 것이며, 그는 여기서 회의하고 사유하며 자기 자신(자신의 부정적 측면)과 자기 사회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문헌병 교수는 충남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신라대 철학과에 재직중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비판이론> <상생의 철학> <공저> 등을 펴냈다.